

# 연구수당 과다지급·쪼개기 수의계약 “딱 걸렸네”

### 전남도, 도립대·농업기술원·혁신도시 지원단 감사 부실 용역 추진 등 20건 부적정 행정 행위 적발

전남도립대와 전남도 혁신도시 지원단, 농업기술원 등이 계약금액을 쪼개서 수의 계약을 하거나, 자신이 심사대상이면서 해외여행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가 하면, 용역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행정 행위를 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전남도는 최근 실시한 '2019년도 도립대, 농업기술원, 혁신도시지원단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도립대 7건 ▲농업기술원 10건 ▲혁신도시지원단 3건 등 20

건의 부당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결과, 도립대 A 교수의 경우 지방 계약법에 따라 시설 증축공사 설계용역비가 4300여만원으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3회로 쪼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도립대는 또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4건(12억9800만원)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전남도의 '연구비 관리 지침' 개

정 요건을 받고도 관련 절차를 미루다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 2700만원 상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해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미흡한 규정으로 여행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공무원해외여행을 심사하는 등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받았다.

전남도 농업기술원도 대상자가 아닌 귀농자에게 관련 서류 확인 없이 1000만 원을 지원했다가 적발됐고 연구결과에 대한 진실·신뢰성을 위한 조치로 요구되는 연구노트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에서 적발됐다. 연구사업 및 생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 보리 등 각종 생산물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도 적발

돼 개선을 요구받았다.

혁신도시지원단은 '빛가람 혁신도시 수립용역'을 진행하면서 애초 계획과 달리, 계약 체결업체가 해외 선진지 조사인원을 줄이고 지역민 설문조사 등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용역비 조정 절차 없이 관련 용역을 마무리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전남도는 이같은 부실한 용역 추진에 따라 2700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파악, 관련 금액을 회수토록 요구했다. 혁신도시 지원단도 일괄 발주가 가능한 투자유치 홍보책자 인쇄건에 대해 쪼개서 발주, 예산을 낭비했다는 게 전남도 감사팀 분석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여수 개도에 다리 놓아 주세요”

### 섬마을 초등생 김영록지사에 편지...김지사 “최선 다할 것”

“여수 개도 막걸리는 진짜 유명합니다. 지사님도 오셔서 꼭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다리가 없어 배로 오가야 해 많이 불편합니다. 지사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세요.”

“저도 섬에서 나고 자라, 섬 주민이 겪는 불편과 간절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개도와 화태도, 개도와 제도, 제도와 백야도를 잇는 다리가 지원단도 일괄 발주가 가능한 투자유치 홍보책자 인쇄건에 대해 쪼개서 발주, 예산을 낭비했다는 게 전남도 감사팀 분석이다.

여수 개도 화정초교 학생들이 지난 3월 10일 보내온 6통의 편지에 ‘섬 소년’이었던 김영록 전남지사가 8일 답장을 보냈다. 학생들은 편지에서 여수 개도의 자원과 자랑거리를 설명한 뒤

“다리를 놓을 것을 김 지사에게 간곡하게 요청했다.

여수 개도는 여수항에서 남쪽으로 21.5km 떨어져 있으며, 뱃길로 50여분 거리에 있다. 면적은 9.46km<sup>2</sup>로, 개도(龜島)의 명칭은 주위의 섬을 거느린다는 의미다.

완도 고금도에서 태어나 덕동초교를 다녔던 김 지사 역시 이 같은 섬 소년들의 불편을 익히 알고 있어 직접 답장을 썼다. 김 지사는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한 자 한 자 정성 들여 쓴 편지를 보니 너무 흐뭇했다”며 “글씨는 조금 삐뚤지만 안에 담긴 순박하고 반듯한 마음을 보고 학생들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나마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 불량 광주시, 134건 적발·조치

광주의 일부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과속방지턱의 도색 등이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8일 “광주 노인보호구역·경로당 150곳을 점검해 위반사항 134건을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은 노인보호구역 68건, 노인안전사고 발생 지점 5건, 경로당 61건이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과속방지턱·노면 등의 도색 불량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호구역의 표지판 설치 상태가 불량하거나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17건이었다.

보수·신설이 필요한 과속방지턱과 도로가 각 10건, 5건이었다.

노인 안전사고 발생 지점을 조사한 결과 도색 불량 2건, 신호등 고장 2건, 안내방송 시스템 미설치 1건이 적발됐다.

또 경로당 점검 결과 가스 차단타이머 및 환풍기가 고장이 나거나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20건이었다.



8일 오후 광주시체육회, 광주시배구협회, 광주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 3개 단체 관계자들이 한전 배구단의 일방적인 연고지 재계약 결정에 반발하며 나주 본사를 찾아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 한전 배구단 수원 재계약 반발 잇따라

### 광주시의회·구청장협의회 “지역균형발전 무시 처사...철회해야”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전력의 남자 프로배구단의 수원 연고지 재계약 체결과 관련, 지역균형발전을 무시한 처사라며 광주시와 체육계 등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어 광주 각계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역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8일 성명을 내고 “한전과 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옮겨온 지 4년이 지

났으나 실질적인 이전은 멀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역민을 무시하는 한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광주시, 체육계, 시민 등 지역 사회가 한마음으로 한전 배구단 광주 이전을 요구하며 유지의향을 내고 서명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러한 지역민의 염원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경북 김천으로 배구단 연고지를 옮긴 한국도로공사를 교훈 삼아

야 한다”며 “지급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배구단 광주 이전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도 성명을 내고 “150만 광주 시민을 무시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과 동떨어진 한전은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의회는 “연고지 협약이 이달 말에 끝나는데도 한전은 기습적으로 수원시와 재협약을 체결했다”며 “시민의 소망을 외면한 한전은 광주시와의 상생발전에 찬

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및 가맹단체 회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 상생 발전을 열망하는 광주시민의 염원을 기망한 한전 경영진을 규탄한다”면서 “광주시민과 체육인들의 영원인 한전 배구단의 광주 유치를 원점에서 재협상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전 배구단은 체육관 시설, 관중동원 능력,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기존 연고지인 수원과 지난 5월 3년 재계약을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전남 도시재생 뉴딜사업 탄력 국토부 4곳 선정...국비 400억 확보

### 광주는 남구 백운광장 일원 전남 순천역·여수 한려동·구례읍

광주시와 전남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중앙정부 지원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광주 1곳, 전남 3곳이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됐다.

광주는 남구 백운광장 일원, 전남은 순천역 인근과 여수 한려동, 구례읍 일대 등 3곳이다.

남구와 순천은 모두 중대형 사업인 중심시가지형(20만㎡ 내외)으로, 여수와 구례는 일반근린형으로 추진 된다.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광장 주변 21만㎡를 대상으로 청년창업물 등 청년거리를 조성하고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고, 오는 202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광주도시공사 투자금 등 879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순천의 경우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역 인근 지역(20만㎡)이 선정되면서 사업비 1291억원이 투입돼 도시재생이 이뤄진다. 거점시설인 '생태(ECCO) 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하고 친환경 예코상품 전시관, 어린이 생태 놀이터 등으로 활용한

다. 정원을 주제로 한 창업도 지원해 순천만 생태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게 한다.

국가정원과 습지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해 관광 안내, 여행자 휴식공간, 자전거 대여 등 복합 기능을 하는 '국가정원 플랫폼'도 조성한다.

여수는 한려동을 중심으로 '여성·청소년과 함께하는 백년재생', 구례는 구례읍 일대에 '뉴카터로 살릴레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순천 등 전남지역 3곳에는 오는 202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518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이날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스테이션G 건립 등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승인됐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승인되면서 창의산업플랫폼인 스테이션G 건립 및 어울림파크도 조성 등을 위한 국가예산이 하반기부터 교부될 예정이다. 또 6월부터는 사업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등에 들어간다.

광주역 도시재생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6년 간 국토부가 지원하는 마중물 사업비 500억원과 15개 부처 협업사업, 민자복합개발사업 등 총 1조1566억원이 투입돼 진행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림형 태양발전소

선착순 분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림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